

홈 > 뉴스 > 기획 > 신탐라순력도

"무릉외갓집, 영농조합법인 출범으로 큰 기대"

김정언 무릉2리장 인터뷰

데스크승인 2014.02.09 김문기 기자 | kafka71@jejunews.com



"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자연생태마을, 우리 마을은 이름 그대로 무릉도원인 셈입니다."

김정언 이장은 아름다운 환경과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마을임을 강조했다.

김 이장은 "우리 마을은 대문이 없고, 범죄가 없어 주민 서로가 믿고 살아가는 동네"라며 "1999년 폐교를 활용한 '자연생태문화체험골'이 운영되면서 마을이 바뀌기 시작했다"고 설명했다.

김 이장은 "'자연생태문화체험골'을 중심으로 돌담쌓기, 도리깨타작, 집줄놓기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마을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, 2005년 녹색농촌마을로 지정되며 마을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"고 했다.

김 이장은 "2007년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면서 가가호호마다 대문을 없애고 전통방식의 정당을 설치하는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"며 "주민들의 노력에 따라 마을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"고 말했다.

김 이장은 지난해 영농조합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'무릉외갓집'에 큰 기대를 걸었다.

김 이장은 "상품을 구입하는 회원 수가 560명으로 마을을 알리고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고 있다"며 "앞으로 회원 수를 1만명 이상 늘어난다면 마을은 물론 제주 전역에서 생산된 농·수·축산물 판로에 큰 도움이 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© 제주신보(<http://www.jeju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